

천축이 되어가는 무등산 풍경



광주의 역사

광주는 삼한시대에 마한,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여 무진주라고 불리웠고, 고려 태조 23년(940년) 광주(光州)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쓰였다. 빛고을이라는 의미의 광주명칭은 천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기도 하다.



광주 심볼마크



광주 캐릭터 '빛들이'

의향(義鄉)의 도시 광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펼쳐 일어섰던 애국충절의 고장이기도 한 광주는 임진왜란(1592년) 당시 제봉 고경명, 충장공 김덕령, 금남공 정충신 등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쳤으며 조선말기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부패한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동학혁명(1894)을 일으켰고 일제의 강점기에는 치열한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1980년 불의와 독재에 맞서 항거하였던 5.18 광주민중항쟁은 민주화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김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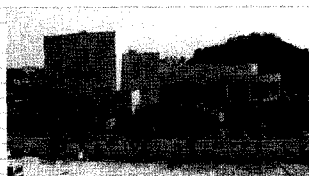
미향(味鄉)의 도시 광주

광주는 드넓은 평야와 온후한 기후조건으로 일찍이 식생활문화가 발달한 맛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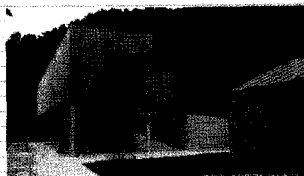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김치문화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경 광주김치 대축제를 열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 고유의 김치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운영과 김치 담그기, 경연, 강연, 실습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민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참여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예향(藝鄉)의 도시 광주

예로부터 광주는 시가문화의 백미인 '송강 정철'과 '면앙 송순', 남종화의 뿌리 '의재 허백



5.18 기념 문화관



의재 허백련 미술관





▲2001년 9월 완공예정인 광주 월드컵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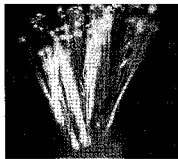


▲정결 및 개방화장실 캠페인



▲새로이 개통될 지하철

련' 등 수많은 예인거장을 배출한 예술의 고향이다. 이러한 예맥(藝脈)이 오늘날 광주비엔날레로 이어지고 있다. 95년 '경계를 넘어서'란 주제로 시작되어진 광주비엔날레 국제페스티벌은 97년(지구의 여백), 2000년(인+간)에 이어 2002년 3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월드컵 개최기간에 맞추어 세계의 예술인을 광주로 초대하여 다시금 지구촌의 예술향연으로 거듭날 것이다.

미래의 첨단도시 광주

뿐만 아니라 광주는 21세기 대표적인 유망산업인 「光산업」의 메카로 새롭게 탈바꿈 되어가고 있다. 지난 99년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제안한 「光산업」이 국가지원산업으로 확정되어 우선 1 단계로 2003년까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11일, 2001년 광주국제광산업전시회가 개막되어 광산업의 선진국과 국내·외 기업간의 교류가 가속화되어 광주 광산업의 세계화와 광주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재래식화장실로 인하여 시민보건이 위협받고 사용 시 부주의(추락)로 인한 사고의 우려와 더불어 환경적으로 지하수 수질의 오염과 악취발생, 전염병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세식화장실로의 전

환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시는 재래식화장실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개선이 꼭 필요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월드컵경기를 대비하여 42,8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98년 11월에 착공하여 올 9월에 완공예정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은 프레스센터, 선수대기실, 통신 및 의료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지형과 환경을 조화롭게 설계하여 시공되고 있는 경기장이다. 또한 경기장내 화장실은 인근 주변의 수영장의 중수를 끌어들이며 세정수로 사용하여 수자원의 절약까지 고려한 친 환경적인 경기장이기도 하다.

더불어 광주시는 광주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와 같이 광주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여 화장실문화의 혁신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와 함께 우수 화장실사진 및 용품 전시회, 청결화장실 및 화장실 개방캠페인 등 그 동안 낙후되었던 광주의 이미 지쇄선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